

특별기고



문인
광주 북구청장

도심의 슬럼화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필요한 영구임대단지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정부의 신도시 200만호 주택공급 정책 일환으로 전국에 공공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어졌고 광주시에는 11개 임대단지 중 5곳이 북구에 위치하고 있다.

북구 영구임대아파트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5개 단지 7,120호로 1인 가구가 5,640세대(79.8%)이며 특히 1인 독거노인이 2,947세대(41%)로 지역의 활력을 위한 공동체 회복과 촘촘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북구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주

거 및 공공환경 개선과 주민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우리 북구는 1991년부터 공급돼 현재 경과연수가 27년에서 29년된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 관내 지역사회종합복지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내년 12월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하면서 이에 따라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창업공간,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 등을 조성해 상가 공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공공임대주택활성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청년창업가들의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청년창업가와 전문기관이 함께 지역주민들과 소일거리를 만들어감으로써 지역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마중물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체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던 주민들이 올해는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방안 찾기에 나섰다. 이에 우리 북구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홈가드닝 치유화단 가꾸기’, ‘문예클래스 및 화단전’, ‘이웃이 이웃을 돕는 활동가 양성’, ‘스마트폰 소통방 식물재배 경험 공유’ 등을 지원하고 주민들은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사회적 열등감 및 열악한 경제적 사정에 더해 코로나19로 상실됐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과 광주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선정돼 맞춤형 돌봄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은 다양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행정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노인, 중장년, 장

어진 등 복지대상자에게 고독사 예방 및 선행관리, 정신건강 만성질환 복합돌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통합돌봄 사업인 ‘우리동네 주치의 서비스’, ‘통합돌봄누리센터’,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 등을 통해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유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 모델

이처럼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광주 북구청 통합돌봄 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독사를 방지하고 정신적·육체적 건강회복을 통한 자립심 고취 등 고령화와 장애에 따른 지역문제들을 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매칠 후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다. 마음만은 훈훈하고 넉넉한 명절을 맞이하길 소망한다. 명절이면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의 외로움이 더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럴수록 이웃이 이웃을 돕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가 필요하다. 민선 7기 북구의 영구임대아파트 활성화 사업이 ‘주민이 돌아오는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 및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북구 영구임대단지,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로

기고



오임관
보성경찰서장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지만 이번 추석연휴도 코로나19 방역지침상 많은 가족이 한꺼번에 만나기는 힘들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누구나 마음만은 고향에 있는 부모형제들과 만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명절을 꿈꿀 것이다. 경찰은 추석연휴에도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이번 추석명절을 전후해서는 코로나 지원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빈집털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이스피싱과 절도피해 없는 한가위를 바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의 노력으로 모든 범죄가 예방되지는 않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빈집털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3년간 보성군 관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금액은 총 43건에 10억 원에 달했다.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이뤄지면서 정부 지원 등을 사칭한 문자 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이 소위 ‘대목’을 노리는 시기다.

과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많았다. 그러나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책으로 30분 지연 인출과 계좌 지급정지 등의 제도 개선으로 은행 계좌로 돈을 부치는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에는 인출책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가는 ‘대면 편취형’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모르는 번호를 통해 들어오는 ‘명절 안부 인사’와 ‘택배 배송 확인’ 등을 가장한 전화금융 사기에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엄마, 나야, 핸드폰이 고장났는데...’라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

해 오는 출처 불명의 메시지를 함부로 클릭했다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 속의 현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절대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범죄 예방 전문가들은 몇 가지만 주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것이 ‘3GO(고)’다.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이다. 무조건 누르지 말고 직접 전화를 통해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특히 최근에는 ‘대면편취형’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다. 쓴 이자가 아쉬운 심리를 노려 대환대출(저금리로 대출 갈아타기)을 해 주겠다고 한 후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식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위조명함을 제시해 속이고,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해 직접 사기범에게 전달하게 한다. 절대 금융회사에서 신용등급 상황, 저금리 전환 등 대출 상황을 명목으로 현금 인출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화가 올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거나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낚시성 멘트에 이상적인 판단이 흐려지기에 일단 전화를 받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은 빈집털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추석명절 연휴를 맞아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집을 비울 경우 허술한 집의 문단속 상태는 절도범들의 표적이 된다. 경찰은 ‘빈집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면 명절 기간에 적극적인 순찰을 통해 절도피해를 예방해 주는 제도다. 집 근처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해 미리 순찰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명절 전 CCTV를 설치하거나 방범창을 설치하는 가시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범죄자의 표적에 걸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최근 우리 보성경찰도 보이스피싱과 절도범죄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추석 특별 치안활동’을 실시 중이다. 코로나19의 방역지침으로 모든 분이 고향을 다녀오기는 힘들겠지만, 마음으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설

‘이동 멈춤’ 추석 훈훈함 잃지 않아야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명절 같지 않은 명절을 맞게 된다. 세계의 유클레를 찾기 힘든 민족대이동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멈춰선 상태다. 열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에는 귀성객들의 발걸음이 한산하고, 오손 도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가족모임도 쉽지 않게 됐다.

백화점과 전통시장에는 명절을 맞아 선물과 제수용품을 장만하려는 발길이 이어지지만 예전만 못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한가위가 아슬아슬한 심정이다.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들은 가능한 출향인들의 고향 방문 자체를 호소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고향 부모, 친지들과 서로 정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온라인으로 안부 인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합동차례를 하면서 안전하고 훈훈한 시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정을 나누는 이들이 있어 아직은 살 만한 사

회임을 실감케 한다. 명절을 앞두고 얼굴과 이듬을 숨긴 독지가의 온정 손길이 이어진다. 최근 한 독지가가 광주 동구청에 오후 20kg짜리 쌀 100포대를 배달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명절 즈음 ‘얼굴 없는 기부천사’의 선행은 동구에서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독지가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가 가시지 않은 명절을 맞아 흥이 나지 않더라도 온정의 마음만은 잃지 않았으면 한다. 가족과 친지, 주변인들과 전화 한 통화라도 따뜻하게 하며 서로의 시름을 달래는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 백신 접종률과 치료약 출시를 감안할 때 곧 코로나 바이러스도 맥을 못 추는 날이 올 것이다. 모두 심기일전해 삶의 열정을 회복했으면 한다. 이르면 내년 설, 또는 추석에는 대면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고삐 바짝 조여야 한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그러나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0명 넘어 재점화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4차 대유행이 두 달을 훌쩍 넘기면서 하루 네 자릿수 확진도 두 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18일부터 시작되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다. 이 기간 수도권의 유행이 부모와 일가친척을 만나기 위한 귀성과 함께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여름 휴가철 이후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경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와중에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모임 인원 숫자를 놓고 설왕설래 말도 많다. 어떤 것이 원칙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것은 정부 책임도 크다. 그간 여러 번 고비를 맞았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비수도권, 지역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성급하게 ‘위드 코로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여 방역의식이 느슨해졌다. 코로나19 종식, 하루가 급하다. 고 서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 스스로 방역에 대한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하는 절실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정부 방역 당국은 물론 지자체도 방역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시민들도 고향 출발 전 백신을 맞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땐 방문을 취소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부모님은 만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동하더라도 가능한 한 짧게 머무르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며, 차례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인 추석 연휴 기간 가족들과 함께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도로명주소 활성화 필요

기고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한지 올해로 벌써 8년째다.

도로명주소는 사람이 거소하는 건물에 대한 위치 체계에서 생활 시설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공간에도 위치식별자로의 주소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9일자로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위치표현이 다양화된다.

도로변의 가로등, 교통신호등, 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와 전주 및 전기·통신 관련 시설 등에 기초번호판이 설치된다.

출입센터, 지진옥외대피소,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도록 해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 안내가 가능하도록 한다.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2차원 평면 개념의 주소체계는 고가도로, 지하도로, 건물 안 내부도로 등 3차원의 입체 개념으로 확대가 된다. 고밀도 입체 도시의 등장에 걸맞게 주소체계를 입체화하고, 자율주행 배송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모든 접점에 촘촘한 주소체계가 도입된다.

또한 혁신 성장산업의 핵심인 드론 배송업, 자율주행시대, 실내 내비게이션 개발 등에서 주소를 목적으로 설



김정운
전남도 토지관리과 주무관

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소체계 마련을 위한 자율주행차 운영을 위한 사물주소 구축, 입체주소 부여, 드론배달점 설치 등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지정리가 된 농경지에서 특정 농지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도 가능해진다. 자주 사용되는 길에 도로명이 급상향 발생 시 위치 안내가 가능하도록 한다.

도로명주소는 전국도 주소체계 구축을 위한 밑그림이다. 미래의 주소는 모든 공간과 사물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트윈의 핵심인 초연결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필수 위치정보인 도로명주소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의 작은 바람이다.

독자광장

화제로부터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기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밤, 달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예년 같으면 설렘으로 가득할 테지만 올 추석은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온라인 제사, 별도 대형 등 소상공마저도 고향 방문 자체를 이해한다니 참 이례적인 명절이 될 듯하다.

정부에서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며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 자체를 권고하고 있지만,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을 찾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며 화재 사고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석 연휴 기간 시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시민의 화재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민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

상되므로 어느 때보다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이 절실하다.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몇 가지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자.

첫째, 음식물 조리 등 가스레인을 사용할 땐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외출을 자제한다. 부득이 외출할 경우 외출 전 가스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닌다.

둘째, 아파트를 제외한 개인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대상이다. 하지만 소방절

검 대상이 아니기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세대가 많다. 따라서 개인 주택에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를 대비하도록 한다.

셋째,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플러그를 접속시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는 우리 스스로가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노력해야 할 때다.

우리 모두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기대한다.

/오원균 여수소방서 여서119센터장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신고	182	▲인광알고음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수도 고장신고	121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전기고장 신고	123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응급의료센터	1339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국특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편 집 부 (062) 720-1073	기사제보의
경 제 부 (062) 720-1066-67	논 설 실 (062) 720-1006	•TEL (062) 720-1050-53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전 산 실 (062) 720-1033	•사회부 010-5601-2219
사 회 2 부 (062) 720-1043	월 간 국 (062) 720-1007	•FAX (062) 720-1080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관 매 국 (062) 720-1004	•E-mail jndn@chol.com
문 화 부 (062) 720-1071	사 업 국 (062) 720-1011,1099	
사 진 부 (062) 720-1040	광 고 국 (062) 720-1016-17	
기획팀사부 (062) 720-1045-46	관 리 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